

요약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개발·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도시건강 수준 지속적 관리 필요

서울시민 건강수준 높이려면 도시건강 고려한 지표 개발·활용 필요

서울시는 지난 50여 년간 급속한 도시화를 겪으며,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가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오고 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환경에 기인한 도시 거주자의 건강문제, 즉 도시건강(Urban Health)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도시가 갖는 단절적 사회관계망, 불건강한 식품에 대한 높은 접근성,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 분배는 도시거주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서구식 생활양식에 기인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암 등의 높은 발생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사고, 폭력과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성질환 발생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이동,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요인이 도시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건강 모니터링은 주로 개인적 건강행태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강(Urban Health)을 고려한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형 도시건강의 개념을 제시하고, 도시건강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서울시 거주자들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관련 건강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시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도출하였다.

건강형평성·비감염성 질환 관리 등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70개 도출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도출을 위해 문헌고찰,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워크숍 및 델파이조사,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이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도시건강

달성전략의 5가지 틀인 ‘건강 형평성, 도시취약계층의 건강요구, 감염성/비감염성질환 관리, 영양 관리’에 따라 분류하고, 70개의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1]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도출(70개)

영역	세부영역	지표	영역	세부영역	지표
건강 형평 성 (46)	공동 (6)	기대수명	건강 형평성 (46)	교통 및 주거환경 (8)	1인당 근린공원 면적
		건강수명			1만 명당 24시간 편의점 수
		자살률			밤거리 위험인식
		성인 흡연율			사회 안전 인식
		성인 고위험 음주율			교통사고 인식
		성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응급의료 (2)	발병 후 응급실 도착 평균 소요시간
	영아사망률	출동 후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영·유아 및 모성건강 (7)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율		보건의료 시스템 (3)	1인당 입내원 일수
		저체중출생아율			1인당 보건예산액
		합계 출산율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		도시 취약 계층의 건강 요구 (2)	의료서비스 접근성 (2)
	임산부 흡연율	총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산후 우울증 경험률				비감염 성질환 관리 영역 (9)
	아동 및 청소년 건강 (4)	10세 아동 치아우식률		암(2)	
		청소년 흡연율	암에 의한 사망률		
		청소년 자살률	고혈압 (2)	고혈압 유병률	
	청소년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고혈압 지속 치료율			
	노인 건강 (5)	독거노인 주관적 건강상태	당뇨병 (2)	당뇨병 유병률	
		치매 유병률		당뇨병 지속 치료율	
		치매 조기 검진율	정신건강 (2)	성인 우울증 경험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중증정신질환 발생률			
65세 이상 노인 걷기 실천율					

영역	세부영역	지표	영역	세부영역	지표
건강 형평 성 (46)	장애인 건강 (2)	장애인 우울증 경험률	감염성 질환 관리 (5)	결핵 (2)	결핵 발생률
		장애인 건강검진율			결핵 사망률
	외국인 건강 (3)	외국인 미충족 의료 경험률		HIV/ AIDS(1)	HIV/AIDS 감염률
		다문화 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간염(1)	B형간염 발생률
		결혼 이주 여성 산전 관리율		인식(1)	신종질병인식
	폭력 및 범죄 (4)	10만 명당 5대 강력범죄 건	도시 거주자 영양 관리 (8)	비만 (4)	적정체중 인구 비율
		가정폭력 경험률			아동 비만율
		아동폭력/학대발생률			과체중·비만인구 중 체중조절 시도 비율
		파트너 성폭력 경험률			10~20대 여자 저체중 비율
	환경 보건 (2)	여름철 온열환자 수		식품섭취 (4)	저소득층 과일 섭취율
		밤 시간 주거지 소음도			저소득층 채소 섭취율
	교통 및 주거환경 (8)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통학) 인구 비율			저소득층 소금 섭취량
		운동장 개방 학교 비율			저소득층 설탕 섭취량
		1만 명당 체육시설 수	-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체계적 관리 위한 ‘책임 있는 기관’ 선정 필수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통계 산출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위해 책임 있는 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행태 및 수준을 포함한 도시계획과 연계된 지표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민건강국 뿐만 아니라, 다부서, 다학제 팀을 활용하여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통계 지표의 산출 주기는 연 1회로 하며, 항목에 따라 설문 주기가 2년인 지표들은 가장 최근 연도를 준용하도록 한다. 도시건강의 개념과 지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표를 향후에도 지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건강지도’ 만들어 시민 제공... 선진도시 모범사례 참고도 바람직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도시건강 지표 결과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 도시건강수준과 위험요인이 시각화된 ‘서울건강지도’를 만들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도시건강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시민에게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對)시민 보건교육 및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이다. 따라서 중소도시와는 다른 도시건강 위험요인을 가진다. 향후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활용할 때, 도쿄, 베이징, 뉴욕, 런던 등과 같은 해외 주요 대도시들과 건강 지표 수준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찾아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 지역보건의료계획·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고도화하고, 서울시 사업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제7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년)에 연구 결과로 제시된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지표의 활용을 통해 서울시 도시 위험요인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도시건강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건강 지표에도 서울형 도시건강 지표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 도시 설계에서 도시 거주자의 건강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2030) 모니터링을 위해 건강과 관련된 전략이 3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1)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3) 환경성 질환 관리 및 시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이다. 하지만 이들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은 도시건강 지표와 다소 거리가 있다. 예컨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경우 서울시 인구당 보건소 개수가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보건소의 개수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도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관련된 도시건강 지표들을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책을 구상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